

인정도서 “경제와 세상” 집필진을 찾아서

Q — 고등학교 인정도서 “경제와 세상” 집필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집필에 참여한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와 세상”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 경제교육 담당자와 충남삼성고등학교 사회 교사,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담당 사무관이 함께 만든 고등학교 인정도서입니다.

KDI는 1971년, 한국이 빈곤하던 시기에 한국 실정에 맞는 경제 정책을 연구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설립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기관입니다. “경제와 세상” 집필진이 소속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기관 내에서 경제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에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경제교육 환경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KDI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청소년 교육, 교사·강사 교육, 자료 개발 등의 경제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충남삼성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함양을 위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양한 경제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제와 세상” 집필진은 송인호, 김수한, 김영인, 박진채, 서한나, 서희원, 안선경, 윤승희, 이성신, 표초희(이상 KDI), 구동현, 박세현, 임국진(이상 충남삼성고등학교), 김유경(기획재정부)이며, 이 내용은 KDI와 충남삼성고등학교 집필진과의 서면 인터뷰로 작성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경제교육 업무를 해 오면서 교과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에 쫓겨 여유가 없었고, 구체적인 교과서 개발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유형의 경제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어 왔으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서 집필에 도전해 보자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협업 교과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KDI 내부에서 집필진을 꾸리고, 충남삼성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집필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흔쾌히 수락해 주시면서 교과서 집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Q—— 기획재정부와 KDI가 제시한 생애주기별 경제교육에서 청소년기는 진로(노동), 소비, 자산 및 위기 관리 등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은 전자상거래 참여, 체크카드 사용, 아르바이트 경험 등을 통해 아동기보다 폭넓은 경제생활을 경험하고 있어, 합리적 경제생활을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와 세상” 집필진이 지향하는 청소년기 경제교육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2017년에 KDI가 수행한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 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에서 도출된 것인데요. 당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데는 제약이 많았기에, 중·고등학교 교사와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을 여러 차례 실시하여 어떤 부분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공통된 진술 내용을 분석해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의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용돈의 액수도 커지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경험 역시 다양해지죠. 또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며, 소득 창출을 염두에 두고 내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등을 고민하면서 진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경제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경제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또 자신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기대하며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경제관념은 살아가는 내내 중대한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일상에서 선택의 기회를 자주 경험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고등학교 인정도서 “경제와 세상”의 내용 구성,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한 KDI와 충남삼성고등학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집필진 구성 후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과서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마인드맵을 그려 보며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습니다. 재미있고, 사례가 풍부하며,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특히, 일상의 경제 문제를 학생들이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경제학의 핵심 개념을 다루되,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과서의 체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론보다 사례에 집중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이론이라면 충분한 설명과 함께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학문적 배경을 알게 되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논의 끝에 대단원을 ‘인간과 경제학’, ‘경제 성장과 빈곤의 해결’, ‘세계 경제와 무역 이론’, ‘기후 위기와 세계 경제’ 네 개로 구성했습니다. 1단원인 ‘인간과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이 학문으로서 갖는 특징과 인간의 합리성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경제학적 논의를 학습하며 경제학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2단원 ‘경제 성장과 빈곤의 해결’에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 시도되고 있는지를 학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로 사고를 확장합니다. 3단원 ‘세계 경제와 무역 이론’에서는 무역 이론들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서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갔는지, 지리적 요인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탐구합니다. 4단원인 ‘기후 위기와 세계 경제’에서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경제 주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해 봅니다. 각 대단원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학문적 성과가 녹아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현실의 문제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고자 했는지 학생들이 탐구해 보고, 나아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에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단원의 내용에 적합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소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인정도서 “경제와 세상”

KDI는 다양한 경제교육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 직무연수의 목적은 학생과 함께 수업의 중요한 주체인 선생님의 경제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 수업 지원을 비롯한 청소년 경제교육,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경제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KDI가 만드는 경제교육 자료는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웹사이트(eiec.kdi.re.kr), 기획재정부가 설계하고 KDI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econedu.go.kr), KDI 종합교육연수원 웹사이트(cet.kdi.re.kr) 등에서 공유됩니다. 교사 직무연수 신청, 자료 신청 등은 모두 KDI 종합교육연수원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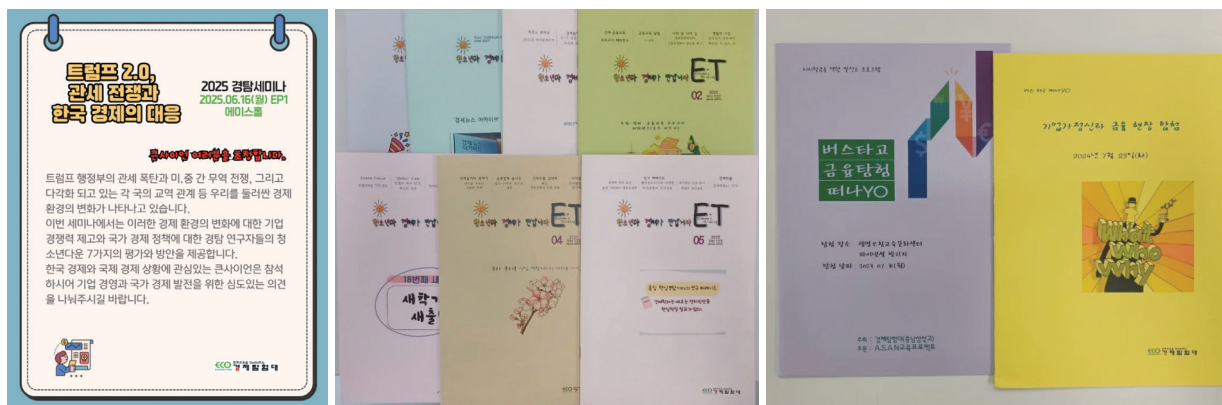


KDI가 개발해 배포하고 있는 경제교육 자료로, KDI 종합교육연수원 웹사이트(cet.kdi.re.kr)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거나 실물 교재를 신청할 수 있다.

충남삼성고등학교는 동아리, 교과 수업, 교내외 활동 등을 통해 경제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동아리 ‘경제탐험대’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매거진 ‘E.T’ 발행을 들 수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발행되고 있는 E.T에는 청소년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제 현상에 대해 학생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분석한 글이 실립니다. 모의 주식 투자, 예금·보험 상품 개발 수업에서는 경제신문을 활용하여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생애 주기 가설 그래프를 활용해 연령대별 재무설계를 직접 해 보며, 창의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경제금융탐험 떠나YO’는 방학을 이용해 버스를 타고 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는 활동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국제 경제”, “사회탐구방법” 과목에서는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세상” 과목 수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교내외 활동으로는 ‘경제뉴스 아카이브’를 들 수 있는

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경제신문 기사 읽기를 통해 경제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분석력과 발표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트럼프 2기 관세 전쟁에 관한
경제탐험대 세미나

청소년 경제·금융 교육 매거진 E.T

‘버스 타고 경제금융탐험 떠나YO’ 가이드북

Q — 경제교육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KDI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KDI는 기획재정부와 협력하여 전국 각지의 경제교육이 지역 간 격차 없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별로 경제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소속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지역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지역 현장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경제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 기초한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보드게임, 읽기 자료, 학습지 시리즈 등 다양한 경제교육 자료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KDI 내부에서 만들기도 하고, 현장에서 경제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강사들과 협업하여 제작하기도 합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KDI는 대전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 충남지역경제교육센터, 충북지역경제교육센터와 협력해 해당 지역 중학교의 자유학기에 경제 수업을 지원해 오고 있

습니다. KDI가 개발한 자료 중 프로젝트 기반 경제교육 시리즈에서 중학생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 교재를 제공하고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중학교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활용하시고자 하면, 교사용 지도서와 함께 학생 수만큼 워크북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 — 앞으로 계획(연구, 실천 등)을 알려주십시오.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경제생활을 해 나가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내용과 방식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과 인력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와 세상” 4단원에서 다룬 기후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변화하는 직업의 형태와 노동 환경,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사기 등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주목하며, 현실과의 접점을 잃지 않고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확산하고 싶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안정을 위해 삶에서 맞닥뜨리는 선택의 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경제교육의 본질은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며 현재와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